

2021년 통권

22

Hanmaum Library Story

한마음도서관 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독서를 통해 가질 수 있다



임양희
인구교육과장

코로나19로 휴관과 개관을 되풀이 한 2021년 한해였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논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위드코로나를 언급할 만큼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한마음도서관은 “코로나가 일상화된 **요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독서를 통해** 가질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의 삶을 소통해주는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2021년 한마음도서관이 걸어온 발자취는 이러하였습니다.

첫째,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민과 거창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이야기자판기 2대를 창포원과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즐기는 독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면단위 스마트도서관 확대 구축 사업으로 2019년에 2개에 이어, 올해는 수송대 목재체험관에 3번째 U-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어디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U-스마트도서관 3개소를 통해 올해 1,037명이 2,420권을 이용하였습니다.

둘째,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장서확충입니다.

올해의 장서구입은 신간도서 4,000권, 특성화도서 1,100권, 디지털콘텐츠 400종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매개하여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책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토론하고 문화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서관이 되고자 양질의 장서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거창 관내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책과 토론을 통해 정보를 나누는 4개의 독서동아리를 활성화시켰고, 한·心(마음)고전인문학당은 ‘단테의 신곡’과 ‘그리스로마 에세이’를 20회에 걸쳐 완독하였습니다. 또한 박완서 추모 10주기 북콘서트, ‘90년생이 온다’ 세대공감 북토크, 그리고 6080어르신 포토자서전 &수필집 제작 및 출간기념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43개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사업과 성인 및 노인 독서프로그램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동네 속의 작은 배움터, 작은도서관 두 개관이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기존의 작은도서관 9개에 이어, 올해는 밝은미래작은도서관과 아림마루 작은도서관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마쳐 총 11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물론 순회 사서 운영 인력 지원을 통해 관내 작은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독서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문고전으로 군민의 힘을 키운다’는 비전 하에,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를 통한 ‘책 읽는 거창 만들기’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U-스마트도서관을 3개소 더 구축할 계획이며, 관내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1명에서 1명을 더 충원하여 지역 사회의 관심과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한마음 도서관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도서관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 가까이에 있고, 지역민의 삶 자체가 한마음 도서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늘 동행해 나가겠습니다.

Contents



02

여는 글

임양희 인구교육과장 2



06

신규사업

이야기 자판기 6

수송대 스마트도서관 7

6080어르신포토자서전 8



09

진화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살아난다 9

도서관 뉴스 10

북스타트 13





14

글마당

한심고전인문학당 수강생	14
아르바이트	15
독서토론동아리 강사	16
한심고전인문학당 강사	17

18

프로그램&행사

독서문화프로그램	18
도서관주간 행사	20
독서의달 행사	21
한심고전인문학당	22

23

추천도서

어린이를 위한 사서 추천도서	23
청소년을 위한 사서 추천도서	24
성인을 위한 사서 추천도서	25

26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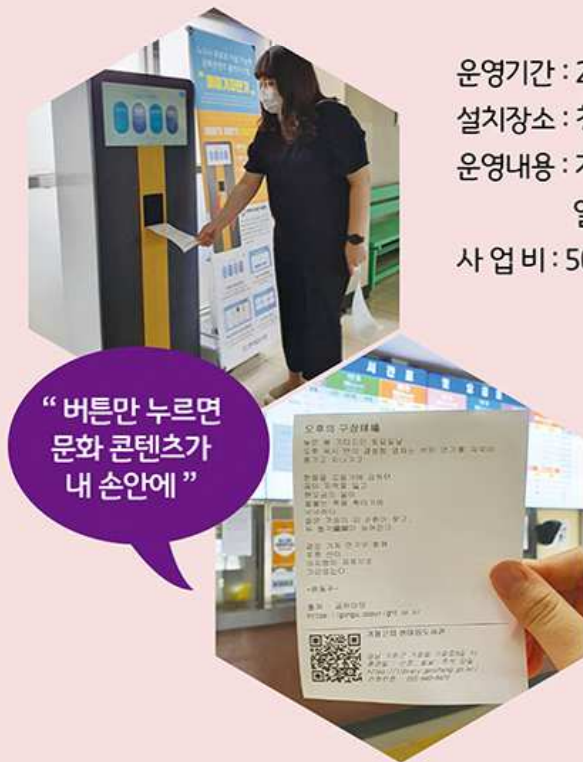
The The 새롭게!	26
--------------------	----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이야기자판기' 운영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문화콘텐츠

이야기자판기는 5~1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시, 수필, 웹소설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종이 영수증 형태로 출력되는 자판기로, 남녀노소 누구나 즉석에서 2,000여편의 문화콘텐츠를 군민과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창포원과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 마련했습니다.



운영기간 : 2021. 9. 15. ~

설치장소 : 창포원, 거창시외버스터미널

운영내용 :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일상 속 독서환경 제공

사업비 : 50,000천원



📍 창포원



📍 거창시외버스터미널



수송대 '스마트도서관' 3호점 운영

24시간(연중무휴)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하세요!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경남 최초로 '스포츠파크'와 '승강기안전기술원' 스마트도서관에 이어 올해는 수송대 목재체험관 인근에 3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 2021. 9. 6.(월) ~

운영장소 : 수송대 목재체험관 인근

내 용 :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24시간 도서 대출·반납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이용대상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회원증 또는 책이음 회원증 소지자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준회원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 이용시간 :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대출권수 : 1인당 5권 14일간

대출정지 : 반납일을 초과한 경우 연체일 수 만큼 대출 정지



2021년 9월부터 준회원의 스마트도서관 대출/반납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스마트도서관 전용 이용 신청 필요)

STEP 1
홈페이지
회원가입
(준회원)



STEP 2
스마트도서관
전용 이용신청
(준회원)



STEP 3
전용 바코드
대출/반납 이용



6080어르신 포토자서전&수필집 도서관에서 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6080어르신 포토자서전&수필집 도서관에서 열다는 관내 60~8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년기의 삶 속 지적(智積)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자서전 쓰기'와 '포토자서전 제작' 두 개의 과정을 6개월 동안 총 35회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9명이 포토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유명인의 전유물로 알았던 내 생애 첫 책인 포토자서전 출간기념회를 11.16.(화) 3층 시청각실에서 6080어르신과 그 가족을 초청하여 국악퓨전 공연, 자서전 낭독, 소감발표, 수업영상 순으로 뜻깊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6080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을 통한 건강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차별 없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포용적 독서활동 체계 조성을 위해 자체적 창작활동 사업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살아난다.

밝은미래작은도서관



- 주소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7-7 2층
- 운영 : 09:00~18:00 (휴관:토/일요일, 법정공휴일)

2021년 5월 10일에 개관한 밝은미래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밝은미래 후원회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1,5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이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지식을 향유하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름마루작은도서관



-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거창경찰서
- 운영 : 09:00~18:00 (휴관: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아름마루작은도서관은 거창경찰서 지하 식당 한켠을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김명상 경찰서장의 도서 100권을 기증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21일에 개관 하였습니다. 현재 1,046권의 인문, 교양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독서를 통해 경찰관 및 지역 주민들의 품격 높은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군민 문화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하였습니다.



숲속작은도서관(북상 빙기실마을)에서 '숲 속 작은 도서관으로 떠나는 신나는 책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운영 하였던 이 프로그램은 빙기실 숲 줄 놀이터 에서 자연과 함께 책놀이, 명물 강통열차 타기 등 자연에서 책임기와 놀이를 함께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서관 NEWS

01 대용량 무인반납기 교체

사업기간 : 2021. 6. ~ 8.

사 업 비 : 27,000천원

설치장소 : 아림초 방향 출입구 도서관 남쪽 출입구

사업내용 : 기존 무인반납기의 용량이 적어 민원 불편 초래로 인하여
대용량 무인반납기 교체·설치로 24시간 비대면 서비스 제고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02 휴게공간을 조성합니다!

도서관 3층 창고로 사용하던 자투리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이용자가 간식 및 차를 마실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3 「책 나눔, 행복 더하기」 행사 운영

이용자에게 기증받은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전액을 '거창군 장학회'에 기탁하는 책 나눔 행사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일시 : 매월 셋째 토요일 09:30~16:00
- 운영장소 : 도서관 2층 로비
- 판매금액 : 권당 1천원
- 운영실적 : 10회 / 469권 판매(판매금액 : 469,000원)



04 도서관 제적회원 복원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180일 이상 연체로 제적된 회원의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2021. 10. 18. ~ 11. 14.
- 대 상 : 137명(제적회원 333명 중 도서관납이 완료된 회원)
- 적용시기 : 2021. 11. 22. ~



자료실 사전
서가정리

장서점검스캐닝을
이용한 장서 점검

오배가 도서
재정리

훼손 및 파손도서
선별 처리

05 장서점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1월 8일부터 14일간 전체 소장자료 13만여권을 점검하였습니다.

장서점검은 장서점검스캐너로 장서목록 데이터와 실제도서 대조를 통해 파손·재정리·소재 불분명 자료를 파악하여 보수하거나 수정하고 미대출도서, 이용가치 상실도서를 선별하여 서고에 재배치 또는 폐기대상 자료로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06 맘(MOM)편한 도서배달 서비스 운영

7개월 이상 임신부 ~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의 독서편의를 위한 맘(MOM)편한 도서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신청 : 홈페이지 신청(도서관회원) 및 도서관 방문(비회원)
- 가입대상 : 7개월 이상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반납 신청(상시) — 도서 배송(택배 또는 방문배달) 및 회수(목요일)



2021년 운영실적

회원가입(명)	대출권수	반납권수	이용건수
27명	505권	525권	51건

도서관 NEWS

07 초등북스타트 온라인 독서감상화 전시

초등 북스타트 온라인 독서감상화 전시회를 9월 6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했습니다. 초등 북스타트 온라인 독서감상화 전시회는 관내 17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6종의 북스타트 그림책을 읽고 느낀점을 그림으로 그려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행사이며, 총 44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전시회는 PC와 모바일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서문화 코너의 온라인전시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08 자원봉사자 운영 재개

10월 18일부터 한마음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자원봉사 운영은 위드 코로나 흐름에 맞춰 1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

자원봉사는 중학생 이상의 연령이면 누구나 자원 가능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4명, 오후 4명씩 참가가 가능합니다.

활동내용은 서가정리, 청소, 발열체크, 이용자 안내 등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자원봉사가 끝나면 1365 자원봉사포털에 봉사실적이 등록되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스타트(Book-start)



북스타트(Book-start)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나눠주고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운동입니다.

북스타트 회원혜택

- 책꾸러미 배부 (그림책 3권, 독서가이드, 가방 등)
- 북스타트 회원을 위한 북스타트 특강 운영

북스타트 대상

- 거창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영·유아(* 출생연도로 나이 구분)
- 북스타트 : 만0~1세
 - 북스타트 플러스 : 만2~3세
 - 북스타트 보물상자 : 만4~6세(초등학교 취학전)
- *기존회원은 나이에 따라 다음 등급 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북스타트 참여방법

- | | |
|---------|---|
| 가입방법 | · 방문신청 : 1층 어린이·모자 자료실 방문(보호자 신분증 필요) |
| | · 온라인신청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서비스—북스타트 회원가입 |
| 신청비용 | · 전액무료 |
| 책꾸러미 배부 | · 도서관 방문 시 : 1층 어린이·모자 자료실 현장 배부 |
| | · 홈페이지 신청 시 : 택배로 배송(1주일 정도 소요) |

2021년 등록 회원 : 300명

(기준일 : 2021.10.31.현재)

북스타트 종류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북스타트 보물상자
가입대상	0-1세 (‘20~21년생)	2-3세 (‘18~19년생)	4-6세 (‘15~17년생)
신청인원	49명	90명	161명

한마음도서관은 나에게 감성 맛 집이다.

박혜린(한심고전인문학당 수강생)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가치는 재미와 의미라고 말한다. 재미있어야 내 인생이란다. 우리네 삶이 힘든 이유는 남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재미만 추구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 말초적 재미는 금방 싫증나기 때문이기에. 아무리 재미있어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 지속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재미와 의미는 동전의 양면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 지속가능한 삶이라고.....

몇 해 전 귀촌을 하고 도서관을 기웃거리다 도서관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독서모임이 있는 걸 알게 되고 하나, 둘 수강하여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몇 해나 했을까? 한마음도서관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함께 수업을 듣고 독서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러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여러 독서모임에서 만난 이들과 서로를 조금씩 알아간다.

도서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모임이 한 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한 달 총 4번 진행된다. 첫 주는 '그림책 동아리' 모임으로 동화작가인 선생님이 리드를 해주시고 둘째 주는 '한마음독서동아리'라는 이름의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지만 주로 문학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 셋째 주는 '한마음독서 토론'이라는 모임으로 문학작품보다는 다른 종류의 장르의 책을 선정해 읽고 토론한다. 넷째 주에는 '달팽이 북클럽'이라 하여 이번에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챕터 별로 천천히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말이다.

이 뿐 아니라 한심(心)고전인문학당이라는 일 년에 두 번에 걸쳐 한 달에 두 번 씩 고전인문학을 심도 있게 읽고 토론하는 모임도 있다. 이 모임은 대구의 파이데이아 소속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리드해 주신다. 고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작품을 시작으로 조너던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 헤로도토스의 *역사*, 단테의 *신곡*,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키케로, 플루타르코스가 쓴 작품 모음집인 *그리스로마 에세이* 등 주옥같은 작품을 읽고 토론하였다. 그래서일까? 이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

여기에 더해 일주일에 한 번 '시낭송 즐기기'라는 수업도 참여를 하는데 현직 시낭송가가 오셔서 함께 시를 낭독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시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소리 내어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을 한다. 함께하는 학우들의 낭독도 들을 수 있고 서로서로 배우며 오감으로 시를 알아간다.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수업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군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됨을 느낀다. 이렇듯 한마음 도서관은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문화를 알게 모르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장소이다. 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실무자들과 애용자들이 있기에 그러하겠지. 앞서 언급한 김정운 문화심리학자의 말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가치인 재미와 의미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공간. 그래서일까? 나에게 한마음도서관은 감성 맛 집이다.

도서관의 별별 이야기

전주연(아르바이트)



별은 과거의 시간이다. 우리가 올려다보는 별들은 대개 지구와 수 십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그 거리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 창문을 열고 별들을 본다 해도 그것들은 이미 수 십 광년 전의 별들로부터 나온 과거의 빛이다.

도서관의 시간도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매일 아침 블라인드를 올려 창문을 열 때면, 건너편에 보이는 초등학생들의 땀방울에 내가 매고 다녔던 가방이 함께 따라다녔다. 창문 옆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책장은 그야말로 시간의 서고였다. 어릴 때 엄마의 입으로 들은 동화책들, 이런 글들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던 소설과 에세이, 그리고 자유로운 꿈을 그리며 읽었던 여행 책들이 서가를 정리하는 손가락을 문득문득 잡아챘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수 년 전의 기억으로부터 나온 과거의 빛을 좇고는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부 같았던 세상이 깨고 보니 그저 하나의 알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 더욱 많은 것들이 아지랑이 마냥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언제 적 교복을 입고 다녔을 때만 해도 당장 눈앞에 있는 책장만이 전부였다. 학생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권씩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왤지 모를 의무감에 그저 빌려 갈 책을 찾기에만 급급했다. 그렇게 빌려간 책을 한 장씩 읽어 내리다 보면 어느 새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흘러갔다.

수없이 흘러간 1년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 건 이곳에 앉아 도서관 자료실 전체를 내다보게 된 후였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나온 시간에서 어느 한 지점이 톱 튀어 오를 때가 있었다. 내가 교복을 입고 읽었던 책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손에도 들려 있는 것을 볼 때면, 마치 수면위에 돌을 던져 물살이 일 듯 풍당 과거의 추억들이 띄워졌다. 그건 비단 교복 입었던 시절뿐만이 아니었다. 분명하지도 않을 만큼의 아득한 시간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입에서 들었던 동화책을 발견하면 그건 그 어떤 보물을 발견한 마냥 더없이 기쁘고 한편으론 돌아가지 못한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비록 자리에 앉아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앞으로 흘러갈 수많은 시간들 중의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비단 이 공간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점으로만 보였던 이곳은 죽 이어지고 이어져 무지개 색을 이루는 기다란 스펙트럼과도 같은 장소였다. 그것은 분명 밤하늘을 빼곡하게 수놓는 별들과도 닮아 있다. 어쩌면 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별들의 과거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닐까. 마치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순간 순간은 점일지라도 그 순간들이 모여 커다란 지평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북콘서트에서 새롭게 만난 박완서 작가님

김연이(독서토론동아리 강사)



2021년 4월 29일에 도서관에서 박완서 작가를 기리는 북콘서트가 있었다. 멋있는 음악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으로 남은 날이다.

박완서 작가는 내가 고등학생 때, 우리 학교 초대 손님으로 여고생들 앞에서 그의 작가의 삶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때 그 깊은 인상은 늘 내 마음속에 담겨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 기억이 흐려져 가는 즈음 북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옛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그의 작품뿐 아니라, 박완서 작가에 대한 책들, 문학비평 서들을 들추어보면서 작가의 삶이 우리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생각에 더 가슴이 뭉클하다. 그는 개인사를 쓴 작가이지만, 그는 시대 작가이다.

그는 1931년생으로 2011년 그의 80년의 세월은 격동의 한국사를 고스란히 안고 살았다. 작품을 통해 그의 개인사는 그저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모두의 역사이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소설 속에 그의 논픽션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의 작품들 속에서 그의 삶의 있었던 사실들이 조각조각 이어지면서 소설이 된다.

작가의 등단 이야기를 보면, 결혼 후 다섯 아이의 엄마로 나이는 40세였으며, 그 이전에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1,200매의 원고를 습작도 없이 단번에 써 내려 갔다고 한다. 이 작품이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작 '나목'이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써 내려 간 것이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박수근'이라는 화백을 알고 싶었다고 한다.

6.25 전쟁 후 그의 암울했던 개인의 시간이, 또 한편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펼쳐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은 이후에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당선 이후 기자들은 박완서 작가의 거침 없는 글쓰기, 40세 나이에 등단했다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도 많이 했다고 한다. 작가는 이후 사십여 년 동안 15편의 장편소설, 100여 편의 단편소설, 11권의 산문집, 동화 창자도 있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았고, 작품성도 인정받아 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부분은 중산층 일상에 도사리는 허위의식, 허세, 허영 거짓 안락, 물신주의. 이러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자세이다. 작가는 이것들이 모두 인간본성을 훼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희경씨의 책 '박완서를 읽다'에서 작가의 소설의 창작 모티브를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크게 공감된다. 1)한국전쟁과 분단문제 2)근대화. 도시화에 따른 문화 변동과 가치변화 3)여성문제 4)노년문제이다. 그의 작품 활동을 5기로 구분한 것을 소개하면, 1기는 1970~78년 한국전쟁과 분단의식,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2기는 1979~83년 여성의식과 노년 의식을 중심으로, 3기는 1984년~89년 여성의식의 심화와 비판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4기는 1990년~95년 자전적 소설을 중심으로, 5기는 1996년~2011년 노년문제, 자본주의문제, 가부장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나는 다시 고등학생, 그 나이에 만났던 그를 기억에서 불러내어 다시 생각을 한다. 그 때의 그 미소,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나는 다시 박완서 작가를 다시 만났다.

인문학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당신을 위한 편지 고전 인문학! 왜 읽어야 할까?

남가을(한심고전인문학당 강사)



코로나의 위기감은 일차적으로 단절의 세계로 초대하지만, 포스트 혹은 위드 코로나 사회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사실 독서라는 키워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레임과 책린이들의 우정을 가져다주는 선물 같은 역할을 할 것만 같다. 하지만 텍스트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독서 환경 변화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첫 만남의 사회 변화를 계속해서 마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인문학은 과연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가?

필자는 한심 고전인문학당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하여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참여자들을 매번 만난다. 참여한 수강생들은 고전 문학의 품속에서 톡톡 튀는 사유와 이야기를 실타래 풀듯이 풀어 나간다. 재밌는 것은 나도 풀고 너도 푸는 데 엉키지 않고, 나와 너, 우리의 인생을 실감나게 풀고 답한다는 점이다. 그 어떤 명사(名士)의 설명과 설득 없이 독자 스스로 고전 인문학과 호흡하는 적나라 함을 보인다. 이는 인문학은 사람을 향한다는 간결한 정의가 당신도 인문학을 읽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조우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사람과 산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 때론 쉽지만 복잡한 질문들이 만들어 지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당신의 지혜와 통찰이 되어 씨앗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타인과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옳은 혹은 타당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동력이 된다. 고전은 당신의 질문에 키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그리스·로마 에세이 중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에서 “그(친구)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아직도 살아 있고, 언제까지나 살아 있을 걸세. 내가 사랑한 것은 그의 미덕이고, 그의 미덕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네” 사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님은 당신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신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은 알고 있으며, 그 부모님을 통해 받은 기억과 추억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키케로의 이러한 통찰은 사실 고전 인문학이 주는 힘이기도 하다. 무수한 고전의 화자는 사라졌지만, 고전이 함의 하는 통찰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오늘을 사는 지금, 나에게 의미 있는 답으로 다가온다. 이는 고전 문학에 그 우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력이다.

이처럼 고전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한 해석학적 질문에 답할 것이다. 비록 당신이 처음 마주한 당황스러운 사회에서도 나라는 존재, 당신이라는 관계,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체는 여전히 당신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다. 사회 방식의 변화는 존재의 정체성을 잃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당신과 사회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고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질문하고 답했던 또 다른 ‘나’라는 사람이 현재의 ‘나’에게 남긴 유산과 같은 것이다. 인간과 삶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과 답은 고전의 품속에서 늘 호흡해 오던 이슈들이다. 역사의 지평에서 당신처럼 질문하면서 창(窓)을 만들고 길(道)을 만들었던 저자의 작품을 당신이 꼭 만나기 바란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인문·독서·교양·취미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배움과 실천이 가능한 **문화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인문가치에 공감하고, 사람과 지역을 연결 해주는 소통의 역할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가치에 공감하고 삶의 즐거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강연, 전시, 북콘서트, 북토크,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되었습니다.

1 어린이 프로그램



신나는 책놀이



창의보드게임



자연미술놀이



북스타그램



하브루타 책놀이



스토리텔링 역사이야기

2 성인 프로그램



그림책 처방전



보타니컬아트



시낭송 즐기기



영화로 읽는 클래식

3 시니어 프로그램



주역



자서전 쓰기



포토자서전



포토자서전 전시

도서관주간 행사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는 올해의 공식주제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하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작을 위해 매년 4월에 진행되는 독서문화 캠페인입니다.

특히 박완서 작가 타계 10주년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박완서 작가 타계 10주기 애독(愛讀)전시」에 이어 「박완서 읽고 듣고 말하고 기억하다」란 주제로 클래식 연주와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민들에게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처음 시도한 북콘서트**였습니다.



독서의달 행사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과월호 잡지 무료 배부, 「불평등, 기후위기, 페미니즘을 고민하다」 테마도서 전시, 「새 공책 줄게, 헌 공책 다오」 필사공책 교환 행사, 초등복스타트 독서감상화 온라인 전시, 「90년생이 온다」 인구교육과 세대공감 북토크, 「달콤한 무한상상」어린이 매직쇼,

모범다독자 선발 및 시상, 「놀부는 왜 그랬을까」그림책 전시, 「책 나눔 행복 더하기」 책!책!책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心(마음) 고전인문학당



서양고전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단테의 신곡(지옥편)」과 키케로의 「그리스로마 에세이」를 토론 도서로 선정하여 20회 진행하였습니다.

한심고전인문학당은 고전문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고전문학 책임기’의 선두주자로 우리 도서관이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서 추천도서



파닥파닥 해바라기

저자 : 보람 / 출판사 : 길벗어린이 / 청구기호 : 유아813.8-보292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라는 해바라기가 파닥파닥 날아올라 존재감을 보인다. 기발한 상상력이 빛나는 그림책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좁혀 공간을 내어주는 다른 해바라기들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주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넌 중요해

저자 : 크리스티 안 로빈슨 / 출판사 : 보물창고 / 청구기호 : 유아843-로48넌

이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존재도 있습니다. 더러는 모두들 너무 바빠서 아무도 도와줄 틈이 없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작별 인사를 고하기도 합니다. 또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것 같고 한없이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당신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저자 : 김영진 / 출판사 : 길벗어린이 / 청구기호 : 유아813.8-김64격

누구나 갖고 있는 '걱정'이라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걱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담을 넘은 아이

저자 : 김정민 / 출판사 : 비룡소 / 청구기호 : CH813.8-김74담

흥년이 깃든 조선시대, 우연히 좁게 된 책을 통해 언문을 깨우치고 차별과 관습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여자아이 '푸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동화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완성도와 감동을 이끌어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청소년을 위한 사서 추천도서



달리구트 꿈 백화점

저자 : 이미예 / 출판사 : 팩토리나인 / 청구기호 : 813.7-이38달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을 정말 사고 팔 수 있을까?'라는 기발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꿈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비밀스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나나

저자 : 이희영 / 출판사 : 창비 / 청구기호 : 813.7-이97나

'영혼 가출'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상태.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여행할까? 작가 이희영이 잠시 여행을 떠난 영혼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왔다. 나에게서 나로 돌아 오려면 놓치지 않아야 할 일주일! 진짜 '나'라는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나의 여행을 담았다.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저자 : 최원형 / 출판사 : 블랙피쉬

인문, 역사, 과학적 지식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함께 환경 기념일의 기원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향유하는 일상이 자연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51가지 환경 기념일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다.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저자 : 태지원 / 출판사 : 자음과모음 / 청구기호 : 인342.1-태78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가 일상 속 차별이나 혐오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회 불평등, 젠더, 빈부 격차, 사회적 소수자, 외모와 인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모습이 미디어를 타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짚어 본다.



성인을 위한 사서 추천도서



밝은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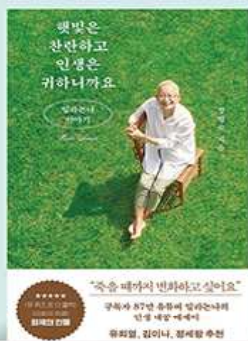
저자 : 최은영 / 출판사 : 문학동네 / 청구기호 : 813.7-최67b

증조모에게서 시작되어 ‘나’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나’에게서 출발해 증조모로 향하며 쓰이는 이야기가 서로를 넘나들며 서서히 그 간격을 메워갈 때, 우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건 서로를 살리고 살아내는 숨이 연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 자체가 가진 본연의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불편한 편의점

저자 : 김호연 / 출판사 : 나무옆의자 / 청구기호 : 813.7-김95b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 <망원동 브라더스>에서 망원동이라는 공간의 체험적 지리지를 잘 활용해 유쾌한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듯 이번에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청파동에 대한 공감각을 생생하게 포착해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저자 : 장명숙 / 출판사 : 김영사 / 청구기호 : 818-장34햇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평생 쌓인 경험과 지혜가 오롯이 스며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습득한 봉사와 검약의 생활 철학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조언을 전하고, 유튜브에서 못다 한 속 깊은 이야기도 풀어놓아 진짜 멋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다정소감

저자 : 김혼비 / 출판사 : (주)안온박스

책 제목 ‘다정소감’은 ‘다정다감’을 장난스레 비튼 말이다. 동시에 김혼비가 다정 들에서 얻은 작고 소중한 감정의 총합을 뜻하기도 한다. 모든 다정한 사람은 조금씩 유난하다. 작가의 문장은 그래서 유난히 반짝인다. 그렇게까지나 멀리 내다보고, 이토록이나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2년 한마음도서관

1. 거창군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 사업목적 :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를 통해 「책 읽는 거창 만들기」 문화 조성
- 사업비 : 15,000천원 (군비)
- 사업내용 : 인문 고전 100권 함께 읽기

2. U-도서관 구축 사업

- 사업목적 : 거리가 멀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 사업비 : 180백만원 (국비), 180백만원 (군비)
- 구축장소 : 3개소
- 사업내용 : U-도서관 구입 및 부스 설치

3.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관내 작은도서관에 전문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 사업비 : 47,315천원 (군비)
- 지원인력 : 2명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지원

4.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 사업목적 :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 사업비 : 19,800천원 (군비)
- 사업대상 : 가조면작은도서관
- 사업내용 :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에 따른 장비(도난방지게이트, 사서용리더기 등) 구입

5. 인터넷 비도서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국내 최대 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비도서 서비스 제공
- 사업비 : 2,028천원 (군비)
- 제공방법 : “웨이브온(wave on)” 도서관 콘텐츠서비스
- 사업내용 :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한 비도서서비스 제공



The The 새롭게!!

6. AI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빅데이터 기반 AI를 활용한 도서 추천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추천 도서 서비스 제공
- 사업비: 28,960천원 (군비)
 - AI 맞춤형 도서 추천 키오스크 구입: 25,000천원 (12,500천원 X 2대)
 - AI 맞춤형 도서 추천 홈페이지 사용료: 3,960천원 (330,000원 X 12월)
- 사업내용: AI 맞춤형 도서 추천 키오스크 구입 및 홈페이지 사용료

7. 도란도란 휴대전화 방음부스 설치

- 사업목적: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휴대전화를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음부스 설치
- 사업비: 10,000천원 (군비)
- 설치장소: 1층 북카페 및 3층 로비 (2대)
- 사업내용: 1인용 방음부스 설치

8. 홈페이지 웹뷰어 솔루션 구입

- 사업목적: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향토자료, 도서관소식지 등 E-book 서비스 제공
- 사업비: 15,000천원 (군비)
- 사업내용: 홈페이지 웹뷰어 바로보기 기능 추가로 E-book 서비스 제공

9.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신청조건: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요건 충족 도서관
- 사업비: 12,000천원 (군비)
- 지원대상: 관내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 지원내용: 신간도서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1개소당 2,000천원 이내

10. 벽면 조경 식재

- 사업목적: 벽면 조경 관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 조성
- 사업비: 12,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도서관 벽면 녹화 화단 조경용 식물 식재 및 관리





도서관 이용 안내

시설명	월,화,수,목(평일)	금,법정휴일(정기휴관)	토,일(주말)
종합자료실	09:00 ~ 22:00	휴실	09:00 ~ 17: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휴실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휴실	09:00 ~ 17:00
자유열람실·북카페	08:00 ~ 22:00	09:00 ~ 18:00	08:00 ~ 22:00

도서 대출/반납

- 대출권수 : 1인 5권
- 대출기간 : 14일(반납예정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 연체시 :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 참고사항
 - 장기연체(7일 이상 연체) 3회 시 6개월 추가 정지
 - 동일 도서의 재대출은 7일 이후에 가능(반납 당일 재대출 불가)
 - 반납연기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940-8470)로 요청 가능
 - 도서 분실 및 훼손 시 동일자료로 변상

도서야간 대출

- 신청시간 : 09:00~17:00(자료실 운영 시간 내)
- 대출시간 : 18:00~22:00
- 대출장소 : 평일(2층 종합자료실) / 주말(행정실)
- 신청방법
 - 자료 소장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
 - 각 자료실로 전화신청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 수령 시 한마음도서관 회원카드 확인 후 대출

예약도서 신청

- 관외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반납 시 우선 순위로 도서 대출 가능
- 예약신청 -> 예약 도서 반납 시 SMS 발송 ->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 대출

회원가입 방법

- 한마음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회원가입 PC이용
- 회원발급 데스크에 신분증 제시 - 직원확인
- 회원정보입력
 - 만14세 이상(본인인증)
 - 만14세 미만(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 회원증 발급 및 수령



발행 : 거창군 발행년월 : 2021년 12월
 발행처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501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렬로 6길 11
 대표전화 : 055-940-8470
 홈페이지 : <https://library.geochang.go.kr>

